

# 새학기 학교폭력 급증... 손놓은 교육청·학교

## 광주 117센터 신고 건수 하루 5~6건 꼴... 대책 마련 시급

■ 광주 117센터 학교폭력 신고 보니

1월 142건 (하루 평균 4.5건)	<b>올들어 392건</b>
2월 175건 (하루 평균 6.2건)	
3월10일 현재 75건 (하루평균 7.5건)	

인터넷에선 '싸움 잘하는 법' 문의 쇄도  
정부 4대 쟁 규정 불구 척결은 난망  
매년 악순환 되풀이... 경찰·교사 적극 나서야



새학기, 학교 교실이 살벌하다. 학교 폭력 상담 전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곳곳에서 싸움판(광주일보 3월 11일자 6면)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이 새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분위기를 제압한다며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가 하면,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 홍보 캠페인 등을 벌이는 데도, 현장엔 반한 개 별로 없는 듯한 분위기다. 오히려 더 교묘해지거나 경찰 순찰차가 오가는데도 공원 등에서 버젓이 일탈 행위를 하는 등 대담해졌다든 반응도 적지 않다.

일선학교와 교육청은 새학기 교육 과정 수립에 몰두하느라 학교폭력 예방 활동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새학기, 상담전화 급증>=11일 광주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학교 폭력 신고 전화 '117'에 신고된 건수는 10일까지 392건으로, ▲1월 142건(일평균 4.5건) ▲2월 175건( / 6.2건) ▲이달 10일 현재 75건( / 7.5건)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도 비슷해 1월 하루 평균 6.4건꼴이던 신고 건수는 ▲2월 8건 ▲3월 11.9건 ▲4월 15.3건으로 치솟았다.

경찰이 지난해 전체 117 신고 건수 3636건 중 88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수준만 다를 뿐 뚜렷한 이유 없이 소위 '만만해 보이는 친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행위 등은 여전한 해석이 나올만하다. 그나마 지난해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욕(676건), 협박(185건) 등을 상담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학기 각기 다른 초등 학교에서 온 중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서열 가리기' 싸움 등을 우려, '싸움 잘하는 법'을 묻는 글도 인터넷에 실재없이 올라오고 있는 형편이다.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싸우면 매번 진다.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격정이다. 싸우는 법 좀 알려 달라"는 글이 하루에 수십건씩 올라오는 등 신학기 싸움과 관련한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9일 광주시 광산구 상정동역산 근리공원 내 공터에서 벌어진 S중학교 3학년생 5명과 관내 중학교 2학년생 25명의 집단 패싸움도 괴롭힘·괴롭힘·괴롭힘 등에서 시작된 싸움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동네 주민들은 "경찰 순찰차가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버

섯이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무섭다"고 하소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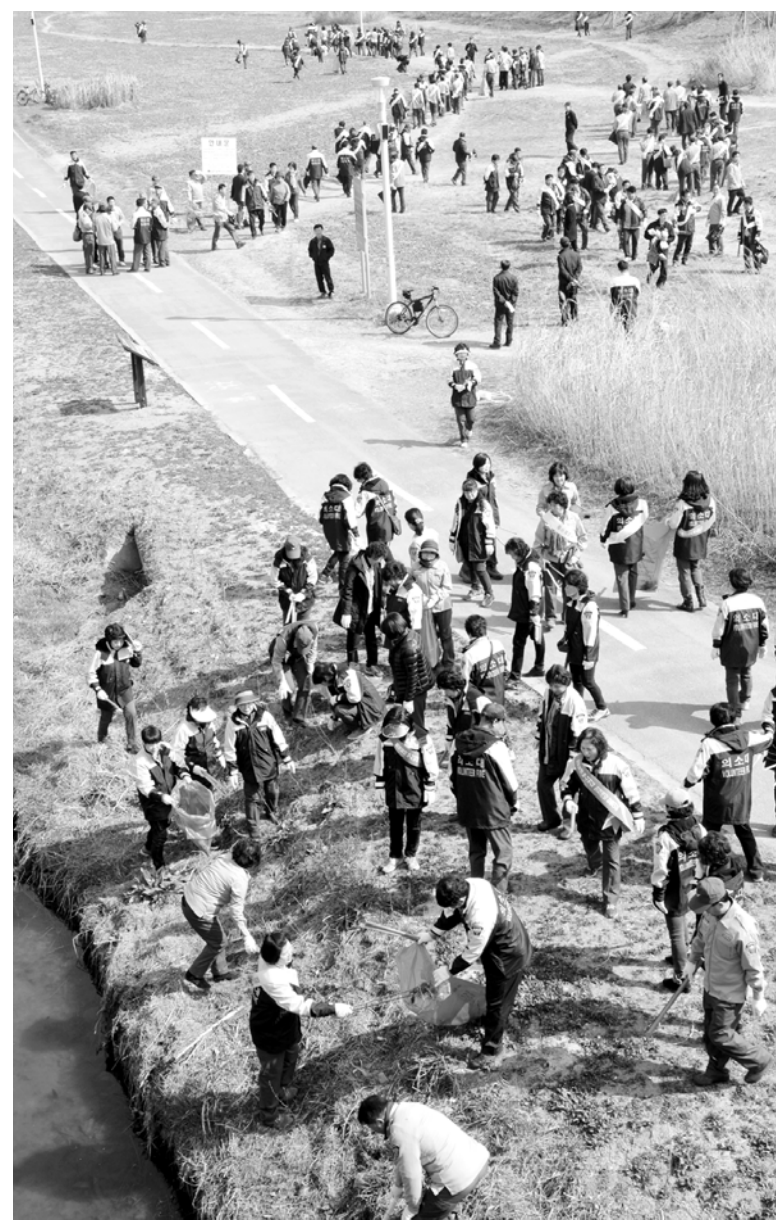
<경찰, '전시성' 아닌, 실효성 있는 방안 내놓아야>=경찰은 지난해 학교 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집중 예방 활동을 벌였다. 광주청만 하더라도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명칭으로 포스트잇, 3색펜, 물티슈, 호루라기, 스티커자 등을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넘게 썼고 집단 패싸움이 벌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광산경찰청은 600만원의 홍보물품을 구입해 뿌렸다. 나머지 경찰서도 수백만원의 학교폭력 홍보물을 만들어 요란한 예방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새학기만 되면 연례 행사처럼 학생들끼리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등 학생들의 현장 체감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일진 경보학교인 광주 A중학교에서 만난 B군(15)은 "등·하교 때 캠페인을 하는 경찰들을 봐도 학생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광산경찰청은 11일 피해 학생이 상담생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괴롭힘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사건 가담자들을 확인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천변 봄철 환경정화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11일 광주 시 서구 광천동 광주천변에서 의용소방대원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청결운동 선포식'을 한 뒤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지역 중3 학력 전국 하위권 '충격'

## 이투스청솔,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국어 16위·수학 10위·영어 9위... 전남도 최하위권

광주지역 중학교 3학년들의 학력이 곤두박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어 교과와 영어 영역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11일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가 내놓은 '2012년 중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3 학생들의 교과별 성취도 점수 평균은 국어 204.27점, 수학 192.85점, 영어 195.87점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국어 16위, 수학 10위, 영어 9위의 점수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국어는 9위(206.04점)에서 7계단 추락하며 전남과 함께 전국 꼴찌권을 형성했다. 5위와 6위를 기록했던 영어(198.50점)와 수학(194.86점)도 각각 4계단씩 떨어졌다.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상위 10% 학생의 성취도 점수 평균도 광주는

바닥권이었다. 이들의 국어 평균 점수는 256점으로 전국 16위였다. 1위 경북(257.76점)과는 1.76점차가 났고, 전년도 11위(258.42점)에서 5계단 하락했다.

수학은 2010년 5위(253.7점), 2011년 7위(247.3점), 2012년 11위(245.4점)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2010년과 2011년 6위(262.14점)였던 영어 상위권 실력도 2012년 8위(257.97점)로 2계단 내려갔다.

"우수학력"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국어의 경우 '우수학력' 비율이 광주는 26.8%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 31.1%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학의 '우수학력' 비율도 광주 17.5%로 세종(7.7%)·인천(16.5%)·울산(17.1%)을 제외하곤 역시 전국 최

하위 수준이다. 영어도 28.6%로 역시 세종(14.8%)·인천(25.3%) 다음으로 전국에서 낮았으며, 전국 평균(27.9%)에 못 미쳤다.

특히 '기초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1.6%, 수학 4.2%, 영어 2.5%로 타 광역시에 비해 크게 높았다.

교과별 성취도 평균 점수에서도 광주는 국어 204.27점, 수학 192.85점, 영어 195.87점으로 다른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전남도 과목별 우수학력 비율, 기초미달 비율, 평균 점수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과목별 우수학력 비율은 국어 23.6%, 수학 11.8% 영어 19.6%로 도 단위 지역 중 가장 낮았다.

이투스청솔은 "우수학력 비율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 고교 및 대학 진학의 질이 좌우되므로 우수학력 비율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와 지역 수준에서 적극적인 돌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 유튜브 달군 '중2 사용설명서'

## '순종 강요하지 마라' 등 부모의 행동지침 담은 동영상 다운로드 인기

대한민국 '중2'들로 떨고 있다. 중2병을 앓는 무서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부모도 학교도 답답하다고 호소한다. 중2들과 평화롭게 동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한민국 중2 사용설명서"라는 유튜브의 동영상 인기다. 지난 1월29일 올라온 이 동영상은 40일만에 1만6132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18분짜리 동영상은 중2병이 왜 오는지, 어떻게 대할 것인지 등 부모의 행동지침을 담았다.

동영상을 제작한 이진아 브랜드유티리더십센터 소장은 "중2병은 엄마는 불안하고 아이는 억울하다"며 "이 병은 반항아 모드가 시발점으로, 덩치 커진 내 아이

가 어느 날 갑자기 반항하면 '울 것이 왔구나'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아이들은 큰 생각을 하거나 큰 일을 도모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일 뿐"이라며 "엄집 아이와 비교하거나 순종을 강요하지 말고, 웃는 얼굴로 자주 칭찬하라"고 조언했다. 칭찬할 것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다치지 않고 들어온 것만해도 얼마나 잘한 일이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아이와 가까움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자는 싸움을 왜 하느냐"며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라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가능성을 인정하라 ▲아이의 변화와 성장을 적극 수용하라 ▲순종을 강요하지 마라 등 '중2 사용설명서 10계명'을 제시했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제1전비 T-50 훈련기 착륙 중 활주로 이탈 조종사 2명 부상 없어

11일 오후 1시께 광주시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T-50 훈련기(골든 이글)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한 뒤 멈춰섰다.

T-50엔 J소령(교관)과 H중위(학생)가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비행훈련(1시간)을 끝내고 착륙한 뒤 속도를 줄이던 중이었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별다른 부상 없

이 기계에서 빠져나왔으나 왼쪽 날개·바퀴는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측은 결합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재 사고 훈련기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보존 중이다.

한편, T-50 훈련기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2시 광산구 신촌동 신야촌 상공에서 비행훈련 중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졌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남의 가게 앞 주차해 놓고 전화 왜 안받나' 핫길 차량 파손



○자신의 가게 앞길에 누군가 차를 주차 해놓은 뒤 전화를 받지 않자 핫길에 차를 파손한 가게 주인이 경찰서행.

○11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김모(59)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자신이 운영하는 보일러가게 앞길에 주차된

임모(45)씨의 1t 화물차의 앞·뒤 문짝 2m 가량을 쇠못으로 긁었다는 것.

○김씨는 가게 앞에 주차된 차 때문에 보일러 물품을 옮길 수 없게 되자 임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화가 났는데, 경찰에서 "남의 가게에 주차해 했으면 전화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냐"며 선처를 호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NAVER **광주 소리큐** 광고심의필 2012-10-18-1326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

NEW **soriQ** 보청기(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 S20, S22, ST33

동구청  
전남대병원 오거리  
남광주역

TV시청할때  
강의들을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상담할때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지사(제이에스 메디칼) 062) 227-1700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무레츠크트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